

우유 공급부족... 돼지·닭고기·달걀값 오름세

개학·입학 '3월' 급식대란 오나

구제역·AI 여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이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3월 초에 '급식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우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AI 확산으로 닭고기와 달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구제역과 AI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급식의 핵심재료인 돼지고기

와 닭고기, 달걀 가격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대한양돈협회의 돼지고기 지육가는 15일 현재 1kg당 6906원으로, 작년 대비 80.7%나 올랐다. 두 달 전보다는 55.1% 올랐고 한 달 전보다도 10.3% 오르는 등 끝없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AI 영향을 받는 닭고기 역시 15일 현재 한국계육협회의 시세로 생닭 1kg은 2400원으로 AI 발생 이전보다 50%나 올랐다.

1년 전에 비해 상승률이 4.3% 수준이지만 두 달 전에 비해 41.1%, 한 달 전과 비교할 때는 14.

2% 오르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식의 단골 재료인 달걀도 대안양계협회 시세로 15일 현재 1개에 161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7.7% 올랐다. AI가 확산하면서 두 달 전에 비해 8.7%, 한 달 전에 비해 3.8% 오르는 등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이처럼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3월 이후 학교 급식이 시작되고 따뜻한 날씨에 날들이 늘어나는 성수기를 맞게 되면 가격 상승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또 구제역 감염으로 젓소가 살처분됨에 따라 우유 공급량이 10%가량 줄어들면서 개학시즌에는 절대적인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통계 관계자는 "젓소의 살처분으로 우유공급량은 10% 감소한 반면 개학 이후 급식이 시작되면 수요는 평소 대비 10%가량 늘어난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은 20%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월세값 폭등 원인을 찾아라"

공정위, 부동산업체 불공정 편승인상 등 조사

최근 사회문제가 된 전·월세값 폭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업체들이 부당하게 전·월세값의 편승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협회 등의 명목으로 배타적인 모임을 만들어 친목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업체에 대해선 부동산 물량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동산중개업소

들이 친목회·협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는 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할 지에 대해선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하지만 중개업소들이 답합 등의 형식을 통해 전·월세값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정중진 카르텔조

는 주체는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지만 부동산업체들이 아니다"면서 "중개업소들의 답합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집값을 정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그대로 따를 리가 없기 때문에 선뜻 조사에 나서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중개업소들이 친목회·협회 등을 만들어 배타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부당한 사업자단체 배제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적지 않은 만큼 공정위 서울사무소 등 각 지방사무소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국민연금공단

'최우수 기관투자가'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투자 전문지인 '아시아 인베스터'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기관투자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 기관투자가상은 기금의 투자성과, 투자전략, 위험관리 등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국민연금은 2009년과 지난해 각각 10.39%와 10.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투자리수 수익률을 달성했다.

연립뉴스

허남석 포스코ICT 사장 올해의 기술경영인상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16일 포스코 ICT 허남석(사진) 사장 등 5명을 2011년도 기술경영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기술경영자(CTO) 부문 수상자인 허 사장은 포스코에 30여년간 재직하며 광양제철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강관 전문제철소로 육성하고, 최첨단 FINEX 공정을 상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16일 광주신세계 카운테스마라 타이 매장에서 한 남성이 유희로 핸드프린팅 한 디자인 박운정씨의 작품이 담긴 신상품 넥타이를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작년 신용카드 판매 첫 400조 돌파

지난해 카드 신용판매(일시불+할부) 실적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카드 대란' 직전 60%가 넘는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비중은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작년 카드 신용판매액은 412조

300조원을 넘는 데 이어 3년만에 다시 400조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신용판매액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카드 대란 이후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에서 벗어나 신용판매 위주로 영업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에는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됐다.

최근에는 공공요금과 대학 등록금 등 과거 카드를 받지 않던 부분까지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연립뉴스

전세자금 대출 확대·금리 인하

국토부 오늘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16일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자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 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진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

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

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타 지역은 가구당 지원액 4000만~50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지원 자격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 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는 53만3000원, 4인 가구는 143만9000원이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85㎡ 이하 주택 건설 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춘다.

대출 한도는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60㎡ 이하 주택은 연 3%, 60~85㎡는 4%였으나 모두 2%로 인하됐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은 가구당 12~30㎡였으나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취지로 12~50㎡로 변경됐다.

박정목기자 jwpark@

집권 3년차, 아파트 시세 변동 얼마나

참여정부 매매 ↑ MB정부 전세 ↑

출발 3년을 맞은 현 정권, 지난 정부의 3년과 비교하면 아파트 시세 변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6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후 3년 동안은 매매가격이 내린 대신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며 참여정부 때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 정부 3년 동안의 매매 변동률은 -0.10%로, 참여정부의 29.17%에 비해 매우 낮았다. 특히 분당(-15.45%), 일산(-12.

37%), 평촌(-10.95%) 등 1기 신도시가 큰 폭(-12.16%)으로 하락하면서 참여정부의 높은 상승률(55.52%)과 대조를 이뤘다.

전세시장은 이와는 정반대로, 현 정부 들어 전국 전세값은 13.93%나 오르며 지난 정부(3.88%)의 상승률을 압도했다.

서울(15.54%), 신도시(10.94%), 경기(13.34%), 인천(11.07%) 등 수도권은 모두 두 자리 수 상승을 기록했고, 대전(31.16%), 부산(25.49%), 경남(20.

41%) 등도 많이 올랐다.

한편, MB정부 3년 동안 전국 주택 공급물량은 총 56만5477가구로, 참여정부(72만8582가구)보다 22.39%(16만3015가구)가량 줄었다.

참여정부 3년간은 지방 공급실적(40만4587가구)이 수도권(32만3995가구)을 앞섰지만, 이 물량이 대부분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현 정부의 지방 분양 물량(22만5724가구)은 반 토막이 됐다.

연립뉴스

모든 객실 천원대까지 마감제사용으로 최고의 행사장

Arts Hall Hotel & Wedding
관광호텔예술의전당
Business Tourist Hotel

웨딩전문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웨딩특전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1가지 특별함

1. 광주의 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2. 예식장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으로 인한 축의금 창출효과
3.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4.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5.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6. 차별화된 호텔식 즉석 뷔페
7. 혼수, 가족 전용 VIP 이용
8.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하니문 룸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9. 토탈웨딩계약시 추가혜택 (대형액자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펠퍼비와수모비서비스)
10. 2-3천원차이의 합리적 식사비 (3만원-3.4, 5, 10, 11, 12월 / 2만8천원-1.2, 6, 9월 / 2만6천원-7, 8월)
11. 이브닝예식 빅이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10%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할인혜택)
- 35만원상당의 현악3중주
- 25만원상당의 예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룸서비스
- 하객 400명이상 보장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안식 30가지)
50%할인된 7만원
객실료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 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 (상무지구 콤플렉스 옆) | www.hotelarthall.co.kr

PREMIUM BUFFET MELYSIA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